

2024년 7-8월 장원준선교사 가정 선교 서신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어느덧 7, 8월이 지나가고 9월의 초입에서 결실의 가을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느덧 이곳 베를린에서 8개월여의 시간을 보내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몸된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는 자체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많지 않아서 교회들 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지난 13년 동안 Bayern주에서 독일 교회 예배당을 오랫동안 빌려서 썼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예배당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베를린 침례교회는 교단을 초월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 사역을 진행해 나가려는 뜻을 품고 서로 돌아보며 영혼 구원과 주변의 교회들을 돕고 또 도움받으며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베를린에는 60, 70년대에 우리나라를 위해 젊음을 헌신하여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로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30%를 충당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서러움을 받으며 5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시는 연세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곳 베를린에는 '해로'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해로는 기독교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미 고령화되신 1세대 파독 근로자들을 독일 사회 복지법 안에서 조건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인데, 저희 베를린 침례교회는 간혹 '해로'분들의 도움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장소 때문인데, 지난 7월과 8월에 저희는 서로의 필요와 그리스도의 사랑 전함을 목적으로 두 차례 함께 협력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번은 **한양대학교의 클래식 색소폰 교수이신 '심삼중 교수'**를 모시고 '전도 찬양 콘서트'로, 또 한 번은 파독 근로자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마음의 빛을 지고 있는 '한국의 좋은 나무 교회'의 섬김으로 베를린에 거주하고 계시는 1세대 파독 근로자 어르신들을 모셔서 섬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과 간증으로 주님을 높이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매시간 시간과 만남을 더욱 뜻깊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또 정성껏 준비해 오신 마음을 담은 선물들도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릴적 맛보았던 호박엿, 한국의 정감 어린 고무신, 무궁화와 태극기가 예쁘게 인쇄된 보자기, 홍삼 선물세트와 예쁜 복주머니와 그리고 그 안에 넣어드린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용돈 등등... 정말 귀한 사랑이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작은 사랑의 협력과 섬김이 깊은 감동과 은혜를 선물해 준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베를린에서 협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며 이곳 유럽의 중심인 독일의 베를린에서 전도와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은 저의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소천하신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8월 19일에는 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장모님의 1주기 추도 예배를 처가 형제들과 함께 줌(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우리 처가의 형제자매들도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처럼 섬기는 교회에서 저마다 장로와 권사로 선교사로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되어 충성하고 있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늘 정직한 신앙의 귀감이 되어주셨던 사랑하는 장모님의 추도예식을 진행하며 저희 모두는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처가의 형제자매들 역시 저마다 마음에 고인(故人)이 되신 어머니의 뜻을 기리며 신앙의 다짐을 하는 감사의 추도예식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이곳 베를린 침례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유럽 선교를 감당하는 작은 사역의 요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동역자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함으로 요청드립니다.

장원준 · 박요진 · 근용 · 미연선교사 가정 기도 제목

1.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베를린 침례교회가 되도록
2.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3.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4.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도록
5. 장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근용이 미연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도록

베를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신 동역자님들의 동역에 감사드리는
장원준선교사 가정 올림.